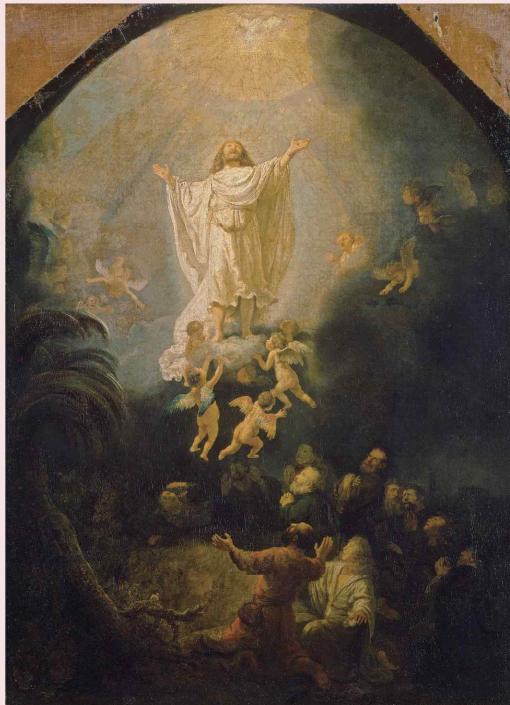




주님 승천 대축일(5월 12일)

승천하시다

(마르 16,15–20ㄴ)



예수 승천

어린 천사들에 둘러싸인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참빛이신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계신다. 먹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로 표현된 성령의 은혜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다.

그림 렘브란트 | 1636년, 유채, 92.5x68.5cm, 알테 피나코텍 미술관, 독일

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ㄴ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15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18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했던 체험들을 나누어봅시다.

†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마르 16,20)

지금껏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았던 체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느님의 복음을 믿어 자기를 복음화하고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화한 사람은 모든 것(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만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몸으로 온 세상 사람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 주며 사는 것입니다. 언어와 종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만나는 것은 복음화의 과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의 종교를 배척하는 것은 모순을 범하는 것입니다. 겹에 질

려 문을 닫아걸고 있던 제자들은 이제 완고한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음 2」, 북랩, 이제민 지음, p.563-56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41번 “죽음을 이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